

착한대출로 신용사회 앞당기고 있는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의 이창호상임대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용 하나만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빌려주어
2011년 8월 창립이후 대출 4,919건에 17억여원중 14억여원 상환돼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이 원칙으로 상환율이 89%에 이를 정도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소개 받을 정도
필요시 주거와 의료에 안경, 가발 등 생필품까지도 지원 아끼지 않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각박한 요즘 시대에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넘길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 주는 곳이 있다. 그것도 바로 가까운 곳 우리 마포에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 몇 분이 아쉬운 사람들에게는 단비나 다름없다. 대흥동의 이대입구역에서 대흥역 방향으로 70여미터 가다보면 골목 한쪽 2층에 자리한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이 바로 그곳이다. 대출은 주로 사연을 담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은 다소 허름한 편이다. 대신 벽에 걸린 다양한 홍보

물이 '더불어사는사람들'의 실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동안 각종 언론에 보도 되었던 내용, 후원행사 및 후원금 전달 사진, 후원자들과 함께한 사진 등이다. 지난 2011년 8월30일 창립이후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명 “착한대출”로 베풀기만 해 온 '더불어사는사람들'의 결과물인 셈이다. 실제 '더불어사는사람들'은 어디 기댈 곳 없는 막막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그렇다고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다. 1인당 30만원에서 많아야 2백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 분이 아쉬운 사람들에게는 천금 같은 돈이다. 그것도 조건도 없는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어서다. 심지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는다. 사연과 함께 약정서 1장에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뒤자리 삭제)이 전부다. 다만 신용만을 담보로 할 뿐이다. 그러니 담보나 보증이 있을 리가 없다. 이쯤되면 기본적인 상상으로서는 의문과 의

혹이 나올 만 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말이다. 하지만 지난 12년째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해온 이창호 상임대표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러한 의문과 의혹은 기우에 머물고 만다.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꽤 양호하다는 점이다. 어렵게 빌린 돈이기에 누구보다도 돈의 소중함과 은혜를 아는 그들에게 가능했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상환된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가 대출이 가능해졌다. 지난 3월 현재 총 4,919건에 대출된 17억4천여만원중 14억3천여만원이 상환됐다고 한다. 상환율이 89%에 이를 정도다.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비대면 대출 개념으로는 가히 기적에 가까운 수치다. 이런 '더불어사는사람들'의 운영은 대부분 독지자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후원금이나, 주거와 의료는 물론 안경, 가발, 비타민, 신발, 의류, 등 생필품에서 컴퓨터, 법률, 재무상담 등 눈높이에 맞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들이다. 부족한 부분은

